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가르침을 말한 경우엔 상제가 진실한 마음을 내려준 본성에 근원을 두었으며, 길러야 함을 말한 경우엔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마음에 근본을 두었다. 서로 드러내어 밝힌 두 성인의 말씀은 모두 임금의 도리가 매우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각각 의리(義理)의 본원을 철저히 규명한 것으로 성인이 아니면 이런 경지에 미칠 수 없다. 후세의 유자들 가운데 간혹 무왕을 성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가 있는데 이른바 그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을 넉넉히 드러낸 것이다.

28

홍범구주(洪範九疇)에는 하늘과 인간의 도가 갖추어 있다. 천도(天道)는 만물을 변화·생성시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일 따름이다. 그러나 음양은 다만 기(氣)로써 말한 것이오, 오행은 질(質)을 겸한다. 이 오행이야말로 만물이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오행으로 첫머리를 삼았다. 이 오행이 있어 만물을 생성하는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오사(五事)는 인도(人道)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오사가 두 번째가 되니 오행 다음이다. 인간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팔정(八政)은 일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러므로 세 번째가 된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자면 반드시 하늘에 합치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오기(五紀)가 네 번째가 된다. 오행을 근본으로 삼고, 오사로써 공경하고, 팔정으로 두터이 하고, 오기(五紀)로써 화합하면 인군지도(人君之道)가 비로소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오(五)가 가운데 자리 잡고 황극(皇極)이 세워진다.

임금의 다스림은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하여 강하고 부드러운 운용이 어느 한쪽만을 편파적으로 내버려서는 안 되며, 백성으로 하여금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끔 하여 중정(中正)한 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덕(三德)이 황극의 다음에 와서 여섯 번째에 자리 잡았다. 일에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서 들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의(稽疑)가 일곱 번째로 자리 잡았다. 임금의 정치에 잘잘못이 있으면 하늘의 여러 가지 징조에 아름다움과 허물함이 있고, 하늘과 인간의 사이에 감응이 매우 신속하니 하늘을 미루어서 징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징(庶徵)이 여덟 번째로 자리 잡았다. 잘잘못의 징조는 하늘의 현상에만 나타날 뿐 아니라 끌내는 반드시 내 몸에까지 미친다. 그러므로 복극(福極)이 아홉 번째로 자리 잡으면서 끝을 맺는다. 하늘과 인간이 서로 함께 하는 도는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범주가 비록 아홉 가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이다.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사요, 그리고 황극은 하늘과 인간을 합하여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사를 얻고 황극을 세우면 오행이순조로와 비오고 별이 나고 따뜻하고 춥고 바람 부는 아름다운 징조가 응하고, 오사를 잃어버려 황극을 세우지 못하면 오행이 막혀 비오고 별이 나고 따뜻하고 춥고 바람 부는 허물하는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사를 닦아 황극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그 요체가 또한 '경(敬)'에 있을 따름이다. 아홉 범주를 서술하면서 성인은 경'을 오사 위에 보태었으니, 그가 인간에게 보여 주는 것이 깊고도 절실하다. 오사의 공경은 임금의 도리로써는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이 사람이 이에 임금의 극(極)에 맞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대개 천자가 표준을 세운 것은 임금이 공경하고 백성이 본받는다. 오직 황극이라야만 백성들이 공경하고 임금이 스승으로 삼는다. 임금과 백성은 비록 귀천의 차이는 있지만 도(道)가 있으면 서로 본받으니, 이것이야말로 또 황극으로 임금과 백성이 서로 함께 하는 도이다. 저 복극(福極)의 효험은 '경'과 '불경'에 있으니 또한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똑같다.

29

<금등>에 "주공이 태공(太公)과 소공(召公)에게 고하기를 내가 피하지않으면 나는 우리 선왕에게 고할 수 없다. 주공이 동쪽에 머문 지 2년에 죄인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였다.

「집전」에서는 "벽독위피(辟讀爲避)"라 하여 정현이 「시전(詩傳)」에서 "주공이 관숙과 채숙의 유언비어 때문에 동도(東都)로 피하여 머물렀다"고 하는 설을 따랐다. "한의 공씨는 관숙을 형벌에 처한다고 할 때의 '치벽(致辟)'의 '벽(辟)'으로 해석하였다." 주자는 '시경집전'에서 공씨의 설을 따른 뒤 "학자들이 또한 정씨의 설을 따른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서경집전'에서는 정현 주석을 기본으로 삼으니 그 뒤로부터 여러 유자들의 설이 분분하여 아무도 결정하지를 못하였다.

공씨의 설을 따르는 사람은 삼숙(三叔)의 유언비어 때문에 재난과 변란을 헤아릴 길 없는데 주공이 어찌 협의를 피하고자 스스로 자신만을 위하는 계책을 실행했겠는가라고 여긴 것이다. 정씨의 설을 따르는 사람은 주공이장차 성왕에게 불리한 일을 하리라는 삼숙의 유언비어에 주공이 어찌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죽이겠는가라고 여긴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44회〉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10)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1597년(정유)년 8월에는 충의공이 각 군현(郡縣)에 신직하여 방수(防守)를 엄히 하게하고, 또 상소를 올려 각 고을의 수재(守宰:원;사또;수령)로서 난중에 달아나 숨은 자의 성명을 조정에 계문하였다. 이때 이순신에 이어 삼도수군통제사를 맡았던 원균(元均, 1540-1597)과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 1561-1597) 그리고 충청수사 최호(崔湖, 1536-1597) 등이 칠천량 해전에서 패사(敗死)하고 크게 패전하였다. 그러자 왜적들이 다시 바다를 덮으며 몰려와 승승장구하니 각 고을의 대소 수령들이 궤멸(潰滅)되거나 도주(逃走)하기에 바빴다.

이에 충의공은 부하로 거느린 여러 진(鎭)에 영을 내려 더욱 병사를 책려하여 기계를 수선케 하고, 다시 영을 내려 정예를 선발해 요해처에 복병을 두어 대비케 하였다. 그리고 또한 각 고을의 수령으로서 도찬(逃竄; 도주하여 숨는 것)한 자들을 계문하니 임금이 유시하여 이르기를, "수령으로서 바람소리를 듣고 도피하는 자가 있어 처처에서 모두 그러하니 지금같이 적에 대한 첩보가 긴급한 때에 일일이 계문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다. 그 가운데 정범(情犯)이 심히 무거운 자는 경이 곧 군중에서 율에 의거 처단하고, 가벼운 자는 결장(決杖:곤장으로 다스림)의 무거운 것으로 좇아 다스려 죄를 쓰고 스스로 힘을 다하여 속죄케 할지어다."라고 하였다.

9월에는 경상관찰사 이용순(李用淳)·병마사 김응서(金應瑞) 등과 더불어 왜적을 추격하여 대구 달성 아래에서 크게 전투를 벌여 격파하였다. 이보다 앞서 왜적이 팔조치(八助峙)를 넘어 졸지에 공산성(公山城)에 이르니 이용순이 크게 놀라 즉시 조정에 치계하였다. 임금이 충의공에게 구원을 명하니 공이 휘하 정병 5백을 거느리고 급히 치달려가 대구부에 들어갔다. 왜적은 이미 공산성을 함락하고 장구(長驅)하여 거리낌이 없었다. 관찰사 이용순이 충의공을 보더니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공이 왔으니 이제 소생케 되었다."라고 하였다. 병마사 김응서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니 드디어 군사를 합쳐서 적을 쫓아가 달성에서 싸웠는데 왜적이 크게 궁하게 되어 스스로 밟아 저희끼리 유린하면서 죽고 남은 무리는 모두 궤멸되거나 흩어졌다. 이 전역에서 의사 곽재겸(郭再謙)은 충의공이 병진에 임하여 용병하는 것을 보고 탄복하여 이르기를, "그 용력을 분발하고 기틀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며 기율과 절도를 구사하는 것은 우리 형님(의병장 곽재우郭再祐)이 미칠 바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였다.

11월에는 선조 임금이 명하여 충의공으로 하여금 명나라 총병(摠兵) 이여백(李如栢, 제독 이여송李如松의 동생)의 휘하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인하여 세 차례나 선전관을 보내 밀지를 내렸다. 이달 5일에 임금이 선전관 임명수(林明壽)를 보내 하유하기를, "천조(天朝:중국 조정)의 병마 대세가 거의 다 내집(來集) 하였고 제독(이여송)이 이미 그 표기(標旗) 아래의 기병과 보병을 각기 세 영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니, 경은 이를 품승(稟承)하고 도원수(권율)의 절제를 받아 병마를 조련하며 약속을 엄히 신칙하고 세 영에 군병을 첨가 배치시켜 소탕을 기약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달 9일에는 또 선전관 민홍중(閔弘中)을 보내 하유하기를, "세 영에 나누어 배치된 장수는 각기 수하의 천병(天兵; 명나라 병사)을 거느리고 군용(軍容)을 성대히 하여 스스로 명나라 장병을 영접하고 2,3일 정도 기다리며 명나라 장수의 절제를 듣도록 하라. 경은 전후에 내린 밀지의 뜻을 의거하여 준수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 체봉(體奉)하되 군사 기밀을 극비로 하고 군중의 일을 비밀로 하라. 비록 경의 관할 하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기밀을 알지 못하게 하여 만분 비밀을 유지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이틀 후인 11일에 또 선전관 민형(閔泂)을 보내 하유하기를, "일이 군사 기밀에 관계되는 것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니 단지 마땅히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대군이 발행하면 군량을 잇대어 보급하는 일이 더욱 긴급한즉 각 영과 각 진에서는 근간한 사람 하나씩을 내어 양료관(養料官)이라 칭하되 또한 스스로 들어서 임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경은 전후에 하유한 것을 준봉하여 마음에 새겨 조치하고 그로써 소탕을 기약할지어다."라고 하였다.

이에 충의공은 선비출신인 홍경승(洪慶承)을 양료관으로 임명하였다. 또 임금이 명하여 충의공으로 하여금 함경·강원 양도의 군병을 명나라 부총병 해생(解生)에게 이속시키게 하라 하니, 공은 대구로부터 상주로 가서 해생을 영접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해생 및 유격장군 파귀(頗貴) 등을 보내 직산(稷山)에서 적을 맞아 격파케 하고 인하여 해생을 차송하여 제2영의 협장(協將)으로 삼아 조령을 넘어가서 아군을 영솔하게 하였다. 공은 다시 해생을 따라 경주에 이르러 경리 양호의 영막 아래 모이고 이로써 대거 진격할 것을 기약하였다.

12월에는 울산의 도산(島山)을 싸움에 참여하여 반구정(伴鷗亭) 아래에서 여러 적을 불태워 죽였다. 충의공의 재종 동생인 병마우후(兵馬虞侯:종3품) 권응심(權應心, 1554-1597)이 친상중인데도 기복(起服)하여 싸웠는데 이때에 김응택(金應澤)과 함께 같은 날 전사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論語解說(7)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제 2 편 위정(爲政)

제18장

자장[子張]이 간록장[干祿章]을 배우려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만이 들어서 의문을 없애고 그리고도 남은 의문의 말을 삼킨다면 과오가 적을 것이며, 많이 보아서 위태로움을 줄이고 그리고도 남은 위험에 대한행동을 삼간다면 후회되는 일이 적을 것이니 말에는 허물이 적고 행동의 뉘우침이 적다면 녹은 그 가운데에 있느니라.

[원문]

子張이 學干祿하되 子曰 多聞闕疑요 愼言其餘則寡尤며 多見闕殆요 愼行其餘하면 則寡悔니 言寡尤하며 行寡悔면 祿在其中矣니라.

[자장이 학간록하되 자왈 다문궐의요 신언기여 즉과우며 다견궐태요 신행기여하면 즉과회니 언과우하며 행과회면 록재기중의니라.]

[이해]

자장[子張]은 성[姓]이 전[顓]이고, 이름이 사[師]이며, 자장은 그의 자[字]이다.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마흔 여덟 살이 연소하였다. 공자는 자장에게 실 수 없는 말과 후회 없는 행동이 몸에 배면 벼슬길은 자연히 따라오리라고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

제19장

애공[哀公]이 물었다. "어떻게 하여 백성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됩니까?" 공자[孔子]가 대답 하였다. "올 곧은 사람을 등용해서 곧지 않은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고 올 곧지 않은 사람을 등용해서 곧은 사람들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습니까."

[원문]

哀公이 問曰 何爲則民服이니까 孔子가 對曰 擧直錯諸枉則民服하고 擧枉錯諸直則民不服이니라.

[애공이 문왈 하위즉민복이니까 공자가 대왈 거직착제왕즉민민복하고 거왕착제직즉민불복이니라.]

[이해]

애공[哀公]은 노나라 국군[國軍]으로 희성[姬姓]의 후작[後爵], 이름은 장[蔣]이다. 논어의 국군과 행한 대담의 기록에는 국군을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공자를 자[字] 대신 공자[孔子]라고 밝혀서 썼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굴복하게 만드는 방도는 위력이나 강제가 아닌 정의와 인덕[仁德]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제20장

계강자季康子가 물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스럽고 충성스럽고 선행에 힘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백성들에게 장중한 태도로 임하면 공경스러워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자애롭게 굴면 충성스러워지고 착한사람을 등용하여 행실이 오르지 못한 자를 가르치면 선행에 힘쓰게 됩니다."

[원문]

季康子가 問하되 使民敬忠以勸하되 如之何니이까 子曰 臨之以莊則敬하고 孝子則忠하고 擧善而敎不能則勸이니라.

[계강자가 문하되 사민경충이권하되 여지하니이까 자왈 임지이장즉경하고 효자즉충하고 거선이교불능즉권이니라.]

[이해]

계강자[季康子]는 노나라의 대부로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실권자였으며 성[姓]이 계손[季孫],이름은 비[肥]며, 강은 그의 시호이다. 백성들이 공손하고 충성스러우며 선행에 힘쓰게 하려면 먼저 위정자들이 신실한 덕을 갖추어 모범을 보이면서 자애롭게 보살피고 덕이 있는 인물을 윗자리에 등용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베풀어야 된다는 세도가에 대한 교훈이다.

제21장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서경에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형제에게 우애롭게 하면 네가 하는 일에 늘 정치하는 도리가 있느니라.' 하였거니와 이런 일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어찌 일부러 정치한다고 나설 필요가 있겠소."

[원문]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이니까 子曰 書云孝乎인저 惟孝하며 友于兄弟하여 施於有政이라하니 是亦爲政이니 奚其爲爲政이리오.

[혹위공자왈 자해불위정이니까 자왈 서운효호인저 유효하며 우우형제하여 시어유정이라하니 시역위정이니 해기위위정이리오.]

[이해]

효도와 우애 속에는 백행의 근본이 되는 인과 덕의 보고가 들어 있는지라 굳이 달리 배우지 않는다 해도 여기에서 정치하는 도리도 얼마든지 취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제22장

공자가 말하였다. "사람에게 신용이 없으면 그는 아무쓸모가 없는 것이다. 큰 수레에 멍에채받이가 없고 작은 수레의 멍에채받이가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원문]

子曰 人而無信이면 不知其可也라 大車無輗하며 小車無軏이면 其何以行之哉리오.

[자왈 인이무신이면 불지기가야라 대차무예하며 소차무예이면 기하이행지재리오.]

[이해]

큰 수레는 우차 작은 수레는 마차 멍에를 걸기위해 가로지르는 채의 양쪽 끝을 고정시키는 부분이 멍에채의 잡이와 받 이인데 수레와 말이 있다손 치더라도 먼에가 없으면 굴러가게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의 처세에 신의가 없으면 자연히 주변으로부터 버림받고 살아갈 앞길이 단절되고 만다는 뜻이다.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子一曰 好之(호지)라도 必察焉(필찰언)하며 衆(중)이 惡之(오지)라도 必察焉 이니라.

해설: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좋아 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즉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부추겨도 반드시 잘 살펴본 후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나쁘다 고 말 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본 후 하라는 뜻이다.)

○酒中不語(주중불어)는 眞君子(진군자)요 財上分明(지상분명)은 大丈夫(대장부)이니라.

해설: "술 취한 가운데에도 말이 없음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에 대하여 분명하게 함은 대장부이니라." (즉 술에 취했어도 말을 함부로 또는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며, 금전 관계에 대해선 언제나 분명하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萬事從寬(만사종관)이면 其福自厚(기복자후)이니라.

해설: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좇으면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 지느니라." (즉 모든 일에 있어서 너그럽게 처리하면 그 복은 다른 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이 되며 자신의 복을 짓는 것이나 같다라 는 뜻이다.)

○ 太公(태공)이 왈 慾量他人(욕량타인) 인대 先須自量(선수자량)하라 傷人之語(상인지어)는 還是自傷(환시자상)이니 含血噴人(함혈분인)이면 先洿其口(선오기구)이니라.

해설: 태공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먼저 알려면 먼저 스스로를 헤아려 보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지느니라."고 하셨다.

○凡戱(범희)는 無益(무익)이요 惟勤(유근)이 有功(유공)이니라.

해설: "모든 희롱하는 것은 이익됨이 없고 오직 부지런한 것만이 공(功)이 되느니라." (즉 어떤 장난이나 희롱은 무익할 뿐이고 오직 부지런하게 일 하는 것만이 공이 된다. 라는 뜻이다.)

참고: 衆..무리중, 好..좋을호, 惡..미워할 오, 나쁠 악, 酒..술 주, 眞..참진, 財..재물재, 丈..어른장, 夫..사내부, 지아비 부, 寬..너그러울 관, 厚..두터울 후.

○太公이 曰(태공이 왈) 瓜田(과전)에 不納履(불납리)하고 李下(이하)에 不正冠(부정관)이니라.

해설: 태공이 말하기를, "남의 참외밭을 지날 때에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셨다. (즉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누가 볼 때 마치 참외를 훔쳐 따는 것 같이 보일 것이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면 마치 오얏 열매를 따는 것같이 보일 터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 하라는 뜻이다.)

○景行錄에 曰(경행록에 왈) 心可逸(심가일)이언정 形不可不勞(형불가불로)요 道可樂(도가락)이언정 心不可不憂(심불가불우)니

形不勞則 怠惰易弊(형불로즉 태타이폐)하고 心不憂則 荒淫不定故(심불우즉 황음부정고)로 逸生於勞而常休(일생어로이상휴)하고 樂生於憂而無厭(락생어우이무염)하나니 逸樂者(일락자)는 憂勞(우로)를 豈可忘乎(기가망호)아.

해설: 경행록에 말하기를, "마음은 편할지언정 육신은 수고롭지 않을 수 없고, 도(道)는 즐거울지언정 마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육신은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허물어지기 쉽고 마음이 거정하지 않으면 주색에 빠져서 행동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기어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데서 생기어 싫음이 없으니 편안하고 즐거운 자가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耳不聞人之非(이불문인지비)하고 目不視人之短(목불시인지단)하고 口不言人之過(구불언인지과)라야 庶幾君子(서기군자)니라.

해설: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고, 눈으로 남의 모자람을 보지 말고,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이것이 군자니라."

참고: 慾..욕심욕, 量..헤아릴 량(양), 噴..뿜을분, 洿..더러울오, 凡..무릇범, 戱..희롱할 희.

惟..생각할 유, 勤..부지런할 근, 功..공 공, 納..드릴 납, 履(이)..신발 리, 冠..갓 관,

逸..편안 일, 憂..근심 우, 怠..게으를 태, 荒..거칠 황, 惰..게으를 타, 弊..베단 폐,

淫..음란할 음, 常..떳떳할 상, 평상 상, 休..쉴 휴, 厭..싫을 염, 視..볼 시, 庶..뭇서, 幾..몇 기,

창화공 추향 안내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내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諱 準)의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본손은 물론 방손 여러분의 많은 參祭바랍니다.

■ 일 자 : 2013년 10월 27일(매년 10월 넷째 일요일) 12시
■ 교통편 : 서울 광화문 세종로 문화회관 옆에서 9시30분 전세버스가 출발함
그밖에 승용차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실 분은 파주시 임진강 북진교(리비교)광장에 10시30분까지 도착하실것
■ 지참물 : 주문등록증 지참 ■ 연락처 : 창화공 총회장 권병선(02)957-8822, 010-5273-7475

※ 창화공 후손여러분은 아직까지 세보편수에 수단을 접수하지 않은 분은 창화공 추향제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라오며 오는 11월부터 세보 반질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안동권씨 창화공종회 회장 권 병 선